



닭고기 먹으며 닭살저플하세요!

- 4월 9일은 닭고기 먹는 날 -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4월 9일에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과 전국 15개 광역시 도청소재지에서 '화이트 닭살데이'를 개최했다.

이 행사의 의미는 1년중 99일째 되는 날로 100일에서 1을 뺀 백일(화이트데이)이며, 99(구구)라는 숫자가 닭을 연상시키고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적 나이로 100살에서 한살 빠진 99세를 백수(白壽)로 표현해 축하연을 베풀던 것에서 시초가 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었다. 한편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며 젊은 연인들의 정서에 맞게 장수커플이 되자는 의미가 더해져 '화이트 닭살데이'로 그 명칭이 변모되었다.





▲ 연인이 한팀이 되어 최강의 닭살커플이 되기 위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좌), 닭살커플 사진 콘테스트는 참가자의 투표로 진행되었다(우).

이날 서울에서는 농림부, 농협,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양계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광장에서 화이트 닭살데이 선포식을 가졌다. 이어서 닭고기 요리로 장식한 조형물 전시, 1,500명 분량의 닭요리와 농협 목우촌 포래오래치킨 무료 시식회, 닭살퀴즈, 닭살커플 선발대회, 닭살포즈 콘테스트 및 사진전시회, 닭살문자보내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펼쳐졌다.

시식행사에서 최준구 대한양계협회장을 비롯한 양계관련 단체장들과 농촌돕기연예인 소속 연기자 김해권, 이일화, 이병욱 씨가 함께 참여해 닭고기 소비홍보운동을 펼쳤다.

한편 이재형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양계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닭고기가 웰빙식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AI와 한미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에게 힘을 주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과 인파들



▲ 농촌돕기연예인 소속 연기자 (좌부터 김해권, 이일화, 이병욱 씨)가 이날 소비행사에 동참했다.

▼ 이날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은 중식으로 삼계탕을 먹으며 오늘 행사에 뜻을 더했다.

